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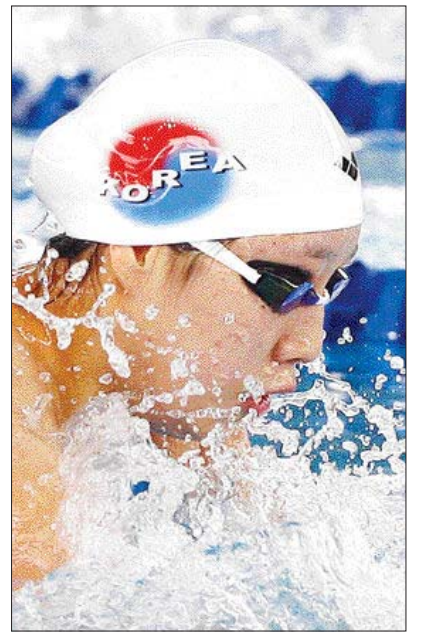


광주 충장로축제 개막 '2007 광주 충장로축제'가 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충장 거리페스티벌'을 시작으로 개막했다. 페스티벌에 참가한 동구 계림2동 주민들이 1920년대 고교 교복과 일본군 헌병대 제복을 입고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재연하고 있다. 충장로축제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된다. > 관련기사 9면 /위략기자 jrwi@

전국체전 히어로

수영 '정슬기' 첫 한국 신기록

여자 수영 한국의 기대주 정슬기(19·연세대·서울)가 광주 전국체육대회에서 올림픽 종목 첫 한국 기록을 세웠다. 정슬기는 9일 오후 광주시 풍암동 영주수영장에서 열린 여자일반부 평영 100m 결승에서 1분09초84에 터치패드를 찍어 지난 8월 방콕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자신이 세운 종전 한국 기록(1분09초98)을 0.14초 앞당겼다. 정슬기는 문미에(경성대·부산·1분13초85)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여유있게 1위로 끝냈다.



정슬기의 기록은 이번 대회 올림픽 종목에서 나온 첫 한국기록이다. 방콕 유니버시아드에서 연달아 한국기록을 깨트려 올림픽 메달 전망을 비춘 정슬기는 12일 주 종목인 평영 200m에서 다시 한국기록에 도전한다. 정슬기는 "터치패드를 찍는 순간 팬들의 함성을 듣고 기록을 세웠다"는 걸 알았다"며 "평영 200m에서 2초 정도 더 단축해 아시아기록도 깨고 싶다"고 당찬 각오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전국체전 관련기사 > 7·9·22·23면

F1·서남권특별법 표류

대선·정쟁에 밀려 법안소위서 낮잠...F1대회 차질 우려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등 지역 현안 관련 법안 제정이 대선 정국을 앞둔 정치권의 힘겨루기에 휘둘려 표류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올 정기국회에서 F1(포뮬러 원)특별법과 서남권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선 유력 후보 유고시 선거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관련 법과 일반 법안을 연계 처리한다는 방침을 들고 나오면서 F1특별법과 서

남권특별법은 본격적인 심의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F1특별법안의 경우 지난 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단 논의는 됐지만 의결을 거치지 못해 다음 단계인 문광위 전체회의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다. 또 이 과정에서 영남권 의원들이 '경주 역사문화도시조성 특별법'과의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나와 F1특별법 처리가 큰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문광위는 10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고,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어서 F1특별법을 포함한 일반법안 심의는 11월 초순까지 발이 묶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서남권특별법안은 지난

달 20일 열린 견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을 정부에 권고한 이후 소위 자체가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최대 현안인 F1대회와 서남권 발전계획 추진이 초광위 전체회의로 부딪히고 있다. 이 법안들이 정치권의 갈등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할 경우 2010년 첫 행사를 여는 F1대회 준비와 서남권 개발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F1대회는 오는 2010년 첫 대회 개최를 앞두고 전남도가 경주장 완공시기를 감안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무산된 부담을 안고서도 7월말 경주장 공사를 시작한 상태여서 법 제정이 순탄치 않을 경우 행사추진 전반에 큰 차질이 예상된 다. /박지경기자 unipark@

손학규, 모바일 대반격

신당 첫 휴대폰 투표 1위 14일 이전 2차례 더 실시

손학규, 이해찬 후보가 복귀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던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이 정상화된 가운데 1차 모바일(휴대전화) 투표에서 손학규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관련기사 4면> 손 후보가 1차 휴대전화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의 최종 후보는 오는 14일 이전 실시될 2·3차 휴대전화 투표와 수도권 등 6개 지역 경선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대통합 민주신당 양길승 국민경선 위원장은 9일 저녁 영등포 당사에서 1차 휴대전화 투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손학규 후보가 7천649표(36.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정동영 후보는 7천4표(33.5%)로 2위, 이 후보는 6천285표(30.0%)를 얻어 3위에 그쳤다. 이번 1차 휴대전화 투표는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4일까지 응모한 1·2차 선거인단 11만4천60명 가운데 3만명을 선정해 실시했으며 총 2만1천175명이 투표에 참가, 70.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신당 대선경선 투표 누계(기호순)

후보	1차 모바일 투표	누적 득표
손학규	7,649(36.5%)	45,500
정동영	7,004(33.5%)	58,129
이해찬	6,285(30.0%)	35,926

이에 따라 휴대전화 1차 투표를 포함한 세 후보의 누적 득표는 정 후보가 5만8천129표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손 후보가 4만5천500표로 2위, 이 후보가 3만5천926표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2위를 차지한 정 후보 측은 경쟁 후보의 무차별 동원선거 의혹 제기 및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 등의 악재 속에서 손 후보와 불과 600여 표 차이로 2위를 차지한 것은 '정동영 대세론'이 강고함을 증명하고 있다며 최종 경선 승리를 자신했다. 한편, 대통합 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는 10일 휴대전화 선거인단 등록을 마감한 뒤 1차 투표 선거인단을 제외하고 오는 14일 이전까지 휴대전화 투표를 두 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 개표 결과를 당일 발표하며 3차 투표는 결과를 바로 발표하지 않고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통령 후보자 지명 대회에서 발표한다. /임동욱기자 tuim@

社告

10월13일 '광산업의 날'

유공업체 표창...체육대회·인기가수 공연도

광주의 차세대 주력산업인 광(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광산업의 날'이 올해로 3주년을 맞습니다. 광주광역시와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주광역시광산업대표자협의회는 정부와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광산업의 비약적인 도약을 위해 '2007 광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광산업 관련업체 임직원과 가족·시민 등 1천여명이 참여하면 이번 '광산업의 날' 1부 행사에서는 체육대회가 펼쳐지고, 2부에서는 광산업 발전유공업체에 대한 표창, 인기가수 초청공연 등 축제한마당이 마련됩니다. '광산업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10월13일(토) 오전 9시~오후 10시
- 장소 : 광주 광산구 첨단공원 및 쌍암공원 야외음악당
- 주최 : 光州日報社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주광역시광산업대표자협의회
- 후원 : 광주광역시 광산업육성기관·단체

우일방편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mju.ac.kr

제 52회 호남예술제 미술 입상작 전시회
전시기간 : 12월 31일까지 광주 지하철 교남로4가역
광주일보사 > 문의 : (062)220-0541

남구가 아껴둔 마지막 실속!
10.12 OPEN
10월 12일 오픈 기념 이벤트
1. 10월 12일 오픈 기념 이벤트
2. 10월 12일 오픈 기념 이벤트
3. 10월 12일 오픈 기념 이벤트
문의 : 062-529-6700